

# 정읍시, 1544억 투입 '식량산업발전' 총력전 편다

### '5개년 종합계획' 농식품부 최종 승인...농가 소득 향상 도모 2025년까지 RPC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 추진

정읍시가 수립한 식량 산업 5개년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정읍시는 식량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정읍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과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정읍시는 그동안 세부적인 종합 계획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식량작물 생산 농가와 농협, RPC 등 실무진 간 유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는 기존 식량 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와 운영, 유통시설 가동률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1544억원을 투입해 RPC 시설 현대화 사업과 버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작물 권역별 단지화와 RPC 중심의 조직화·계열화를 통해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품목별 농가 대표와 지역농협,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식량 산업종합계획 심의·점검·이행평가 ▲식량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통합마케팅 운영 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전략 품목 선정·육성 및 발전방안 제안 등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역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의 조직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시의 '식량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정읍시 제공>



순창군이 최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농촌 정주여건 개선 '속도' 순창군, 5년간 500억원 투입

순창군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올린다.

22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최대 50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순창군은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용역은 2021년부터 20년 장기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5개년 중기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으로 나눠 수립된다.

순창군은 순창읍과 인계·적성·유등·풍산·금과·팔덕면 등 총 7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보육, 문화·체육 등의 취약한 분야 개선 방안을 담는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양 계획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회에 들어간다.

순창군은 5년간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고장으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군산시, 52억원 투입 조기경보시스템 15곳 구축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군산시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각종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지진, 해빙기)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52억5000만원(국비 26억 2500만원, 도비 10억5000만원 등)이 투입돼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 등 15개소에 구축하게 된다.

조기 경보시스템은 기상특보 발효 시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기상특보 사항, 주민 행동요령 등 문자 및 동영상 송출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역 기상 상황을 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실시간 현장 영상 송출 및 변위 계측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사면붕괴(산사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지진 및 겨울철 해빙기 등 보이지 않는 재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시민 사전대피 및 신속한 상황전파,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등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현재 재해감시 CCTV 29대, 재난음성통보시스템 8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대, 자동우량경보시설 24대, 지진측정기 1대의 재난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립도서관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 읽고 도서관에 내면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제공>

## "동네서점서 책 사 읽고 가져오면 책값 돌려줘요"

### 남원시, 이달부터 시행...지역경제 살리고 주민 독서 확대 '이중 효과'

남원시는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 읽고 도서관에 내면 책값을 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동안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업은 남원시민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한 달 안에 남원시립도서관이나 어

린이정소년도서관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구매 대금을 사실상 전액 되돌려주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권, 4만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24권, 48만원이다.

책값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수험서나 만화책, 2016년 이전에 발간된 책을

제외하고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 책은 모두 해당한다.

제출된 책은 도서관 소장 도서로 활용하거나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나눠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 밀려 쇠퇴하는 지역 서점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 남원지역 50개 기업 참여

남원시가 '2020 온라인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연다.

박람회에는 남원과 인근 지역 기업 5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면접 분석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무료로 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의 참가 신청은 남원시 온라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namwon.coachjob.net)에서 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